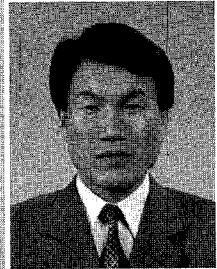


전청련의 영원한 투사 신영일의 삶



전 전남 민주주의청년연합 사무처국장 김전승

1960년생, 전남 민주주의청년연합 민생위원장, 사무처장, 대의원의의장, 민청련 중앙위원, 광주홍사단 사무처장, 현 광주 북구 퇴민지원후견기관 관장

청년이여
청년의 모범이여
살아서 민중의 방패
죽어서 민중의 창이 되어라
홀로는 불꽃으로 숨쉬며
어우러져서는 들불로 타오르는
어둠의 산하를 헤쳐
새벽의 보람찬 세상으로
함께 가고파

-국립 5.18 묘지에 안장된 신영일 님의 묘비의 글-

학생운동가로서의 신영일의 삶

신영일은 1958년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를 거쳐 1977년에 전남대학교 국사교육과에 입학하였다. 입학하면서부터 당시 전남대의 사회과학 동아리 '독서잔디'에 가입하여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깨우치고 유신말기 독재정권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2학년 때인 1978년 6월 29일 민주교육헌장을 비판하는 '민주교육지표' 사건이 일어나자 학생시위에 참여하여 무기정학을 당하여 학교에서 쫓겨난 후 윤상원, 박관현, 빅기순 등과 함께 광주지역 최초의 노동야학인 '들불야학'의 강학으로 참여하여 청년 노동자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광천공단의 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

그 이듬해인 1979년 학교로 돌아온 그는 들불야학과 공단 실태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조사연구반'이라는 동아리를 조직하고 노동자, 농민 즉 민중을 운동의 주체로 인식하면서 학생운동은 이러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복무해야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10·26 직전에는 학내사찰의 핵심기구인 상담지도관실을 방화함으로써 독재정권의 폭압 기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를 보여 주었으며, 그 일로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10·26사건으로 독재자 박정희가 죽자 풀려나게 되었다. 신영일은 10·26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학생운동의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동아리를 사회문제연구 중심의 새로운 동아리로 발전시키는 한편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는 학회인 근대사연구학회, 노동문제연구학회, 농업문제연구학회, 민족문화연구회, 교육문제연구회, 후진국경제학회 등을 조직하여 학생운동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1980년 민주화의 봄을 맞이하여 민주적 학생회의 구성과 어용교수 퇴진, 학내의 새로운 민주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교내투쟁을 전개하면서 새로 조직한 학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후배들을 지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는데, 당시 신영일은 민주화의 열린 공간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운동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남다르게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을 확대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광주시민은 5·18 민주항쟁을 일으켜 민중이 투쟁의 주인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러한 신영일의 과학적 사고와 역사적 경험은 5.18 이후 폐허 속에서 학생운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80년 9월 휴교령이 풀리고 학교가 개학하자 계엄군에 잡혀가지 않은 3, 4학년들을 조직하여 학생운동 일반론을 정립하고 조직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학습방법론과 사회과학 학습을 위한 학년별 커리큘럼을 제작하여 사회과학 동아리의 활동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학생운동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80년 후반에는 많은 학회(동아리)들이 조직을 정비하여 5·18 민주항쟁 체험을 바탕으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장기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이론적인 무장을 할 수 있

었다. 광주지역에서 80년대 초반 학생운동을 경험한 대부분의 학생운동가들은 신영일이 제안한 운동론에 근거한 잘 짜여진 사회과학 커리큘럼에 의해 체계적인 학습이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1981년 5·18 1주년을 지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학생운동 진영에서 5·18 1주년이 되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일부 학생들이 비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신영일은 졸업을 한지 한 달만인 81년 9월 29일 임낙평, 이광호와 함께 '반제반파쇼민족해방 학우투쟁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이 선언과 시위를 통해 신영일은 5·18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운동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일회적 시위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

이 사건으로 1982년에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신영일은 80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인 박관현을 옥중에서 다시 만나 5·18의 진상규명과 교도소 내의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단식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해 10월 40여일의 단식투쟁의 후유증으로 박관현 열사는 숨지고 신영일은 제기불능의 체력을 안고 병보석으로 출소하였다.

10개월여의 요양을 한 후, 1984년 초 그는 다시 '구속자협의회'의 간사로 공개적인 운동단체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이후 1984년 11월 18일 공개적인 청년운동 단체인 '전남 민주청년운동협의회(전청협, 85년 이후에는 전남 민주주의청년연합)를 정상용, 정용화, 송재형, 장갑수 등과 함께 창립하고 홍보부장을 맡아 기관지 '광주'와 소식지 '광주의 소리'를 편집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청년운동과 민통련 운동의 주역

1984년, 전청협 창립 이후 신영일은 열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갔다. 그는 이론과 실천, 조직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남다른 면모를 보여 주었다. 역사와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모순과 불의에 맞서 주저함없이 싸우는 불굴의 투사로서, 그리고 힘없고 소외당한 사람들과 더불어 삶의 애환을 함께하는 진실한 인간으로서 그의 모든 것을 바쳤다.

창립 초기에는 기관지 '광주'를 통해 지역운동론을 제기하였는데, 80년 광주민중항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중심의 운동을 탈피하고 지역의 자립과 연대를 통해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하여 그 당시 많은 지역운동 단체들에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소식지 '광주의 소리'를 통해 시민들의 반독재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민

중의 권익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는 현장을 찾아 그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동분서주했다. 더 나아가 신기리 주민, 광양만 피해어민, 택시기사들의 파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지원투쟁과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시민 토론회를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조직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였다. 1985년 8월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어 전청련으로 이름을 바꾼 후 내부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연대조직인 전남 사회운동협의회(전사협)와 전국적 연대체인 민통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대의 지평을 열어갔다.

1986년, 운동진영에서 달아오른 개헌 논의가 정치권으로 파급되어 야당 정치세력이 직선 개헌 추진현판식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전개하였는데, 광주에서는 3월 30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광주 금남로 YMCA에서 계획된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밤새워 토론하였는데, 신영일은 예의 예리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많은 대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슬로건과 요구를 대중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여 3·30 투쟁을 이끌어 냈다. 그 후 수많은 전청련 활동가들의 체포와 수배에도 굴하지 않고 이후 5·3 인천시위까지 민통련을 중심으로 개헌투쟁을 이끌어 내는 산파역할을 담당했다. 수배 중에도 대구, 인천 등 민통련의 지역조직과 결합하여 민주헌법쟁취투쟁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여 민통련의 정치적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였으며, 그 투쟁이 끝난 후에도 민통련 운동론을 정립하기 위한 모임에 참여하여 민통련의 방향에 관한 토론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당시 민통련의 지역운동협의회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지역활동가들은 민주헌법쟁취투쟁으로 수배 중이었음에도 경찰의 눈을 피해 거의 매일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할 만큼 치밀하게 활동하였다.

1987년 초 오랜 수배생활을 마감한 신영일은 87년 6월항쟁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수많은 청년대중의 투쟁을 확인하고 대중적 청년조직으로 거듭나는 청년운동론을 정립하였다. 신영일 자신도 일하는 청년으로서 낮에는 의료기상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전청련의 광주지역 부위원장으로서 조직일선에서 활동하는 청년운동가의 모범으로 보이고자 했다. 그 당시 그는 전청련이 일하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청년회로 거듭나기 위해 소수활동가 중심에서 다수의 청년대중들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운동의 발전적 전환을 모색하였고 또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청년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전청련 내에 사무직청년모임, 생산직청년모임, 여성청년모임, 학생청년모임 등과 같은 소모임이 결성되었고 목포, 순천, 여수, 보성, 나주 등지의 전청련 지역위원회가 창립하게 되었다.

1987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국은 후보단일화와 비판적지지로 나뉘어 내부 분열로 겪게 되었다. 신영일은 민통련의 비판적지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의미의 김대중 당선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김대중 당선을 위한 청년모임'을 조직하여 가두홍보와 연설회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선 후에는 대선 실패로 인한 좌절을 겪으면서 전청련도 시련을 겪게 되었는데, 회원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상근활동가도 생활문제 때문에 운동의 일선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영일은 활동가들과 거의 매일 밤을 새워가며 회의와 토론을 거듭하였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전청련의 진로와 재정문제 등에 관한 고민으로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지면서 심신은 극도로 허약해져 갔다.

1988년 4월 어느날 전청련 활동가들과 회의를 마치고 이쉬운 마음에 한 군데 더 들러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간 신영일은 병상에 눕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9일 영영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과로가 부른 열병으로 인해 그의 신체는 더 이상의 열정을 허락하지 않고 불꽃은 그렇게 사그라져 갔다. 그의 나이 30세, 그렇게 그는 젊디 젊은 나이에 그가 바라고 바라던 민주주의 민중세상, 통일세상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신영일을 기리며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7년, 우리는 그를 떠올릴 때면 늘 두 가지를 생각한다.

하나는 끈질긴 토론이다. 정세를 분석하거나 어떤 실천적 행동이 요구될 때 일반적으로 당위론적 입장에서 몇 가지를 짚고 결론을 내리거나 행동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신영일은 끊임없이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라는 등의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개의 경우 심각한 현안문제를 놓고 토론할 때 신영일의 결론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결론이 되곤 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갖고도 심각하게 토론을 하는 경우에 '형은 뭐가 그리 복잡합니까?' 하고 물으면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선뜻 나설 수 없다고 대답하곤 했다. 수많은 토론을 통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행동하려는 신영일의 모습에서 우리는 운동과정에서 조그만 실수도 용서하지 않으려는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본다.

또 하나는 동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다. 그가 남긴 몇 가지 유품 중에 당시 민통련 지역 운동협의회 의장이었던 이광철 형의 결혼을 축하하며 남긴 편지글과 나의 결혼식에 오지 못해 미안한 마음으로 쓴 편지글이 있었다. 그 편지 속에서 신영일은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담아 운동가로서의 생활과 철학에 대해, 가정생활의 원칙과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 애정어린 글을 남겨 주었다. 이런 구체적인 증거 말고도 신영일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자신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 주고 조언을 해 주는 모습일 것이다. 그만큼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처럼 따뜻한 격려와 충고를 해 주는 영혼이 맑은 사람이었다.

지금은 80년대의 중반과는 달리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싸워야 할 적도 당장 눈앞에서 찾기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영일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릴 어디로 안내하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설파할지 궁금하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의 삶을 기억해 주길 바라며 망월묘역에 묻힌 그의 영혼이 자유롭길 빈다.